

우리 모두는 최고를 좋아한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도태할 것 같은 '최고중후군' 환자인지도 모른다. 최고가 되려면 발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발전을 단순한 자리타움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이 치열한 경쟁을 버릴 수 없었던 장애인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점점 밀려나 소외되는 구렁에 빠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장애인을 경쟁상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치부한다.

장애인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장애인들은 소비자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양만큼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너는 장애인이니가 이런 정도의 도움이나 필요할 테니 이걸로 잘 살아라 라는 식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바로 이런 탁상공론 식 제도 때문에 얼마 전 한 장애인이 생계비 인상을 요구하며 구청 현관 앞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론에서는 구청장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성 자살로 보도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그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얼마를 지급받았고, 장애수당으로는 얼마가 지원되고 있었다며 줄 만큼 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방귀희 '숫대문학' 발행인

장애인도 '소비자' 다

이 죽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다. 이 휠체어 장애인이 진정 원했던 것은 소비자로서의 삶이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에는 장애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이다. 돈 몇 푼 지원한다고 장애인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이 순간도 알게 모르게 장애인

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은 그 흔한

암 보험 하나 가입할 수 없는 현실이니 말이다. 자주 이런 전화를 받는다.

"고객님, 저희 카드회사에서 이번에 고객님의에 대한 서비스로 보장성 보험을 들어 드리고 있는 데요" 하면서 보험 상품을 열심히 소개하다가, "어쨌쎬, 난 장애인인데" 라는 말에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는다. 그럴 때 끈질기 보험 가입의 권유에서 벗어났다는 시원함보다는 '아, 나는 위험에 다했을 때 고스란히 당해야 하는구나'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고,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장애인은 뭔가 하

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장애인들은 우리 이웃이라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낸다. 장애인을 돕는 사람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기업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어디 그런인가. 요즘 자매증 청년의 마라톤 인생을 담은 영화 '말아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화 한편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만큼 바꿔놓을 수 있겠는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이해와 관심이다.

"저런 아이를 왜 밖에 내보내오. 정신병원이니 장애인시설에 보내지"라는 대사가 영화 '말아톤'에 나오는데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장애인은 함께 살기보다는 따로 살면서 가끔 자신을 배후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아직도 장애인에게 달려 있는 장수가 많다.

결론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시각이 장애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불자의 눈

공약(公約)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공적(公的)인 약속이다. 공적인 약속은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함께한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헛된 약속이라는 의미의 공약(空約)으로 치부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타락한 정치 풍토, 공인의 말에 대해 철저이 이행을 촉구하는 국민의식이 아직 성숙치 못한 우리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불교계에 대한 공약의 이행도 점검에서도 드러난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교계에 제시한 공약 10개 가운데 크게 보아 4개 정도는 이행되었다 할 수 있고 4개는 이행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두개는 불교계로 보아서도 이행이 불가능한 공약이라 한다. 아직 공약의 40%도 이행하지 않은 노 대통령의 경우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보다는 이행 지수가 높은 것이라 하니 과연 과거 대통령의 헛된 약속 지수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우선은 그나마 높은 이행률을 보

공약이행... 신뢰의 성적표

는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성은 약속을 지켜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공약이행률 달성을 촉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공약 이행을 전적으로 약속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며, 약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켜져야 한다고 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지금의 정치는 이상적인 모습을 띄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진 쌍방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

결국 불교인들이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앞당기고 촉구하는 결집된 힘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 약속이라고 해서 국가적 차원이나 불교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특실이 불분명한 사안들은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여 보류할 수 있는 것은 보류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불교계를 위해서도 또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 시급한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집약해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불자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또한 상생 공조하는 이상적 모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데서부터 우리 불자들의 성숙해가는 정치의식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 성태용(간곡대 교수)



이렇게 들었다 어느 부부의 '살신성인'

중생을 죽이지 말라. 보살은 항상 자비스런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 한다. (범법경)

지난 설날, 어느 교통사고현장에서 사고 운전자를 구해 주다 뒤에서 오던 차에 치여 30대 부부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전주-순창 도로 계곡터널 부근을 지나던 부부는 앞서가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자 급정거를 하면서 멈춰섰다. 앞차의 운전자가 운전석과 피그리진 차문 사이에 끼여 나오지 못하자 부인은 도로 가운데서 수신호로 뒤에 오는 차량을 서행시키고, 남편은 사고 운전자를 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고 운전자를 막 구조했을 때 어두운 밤길에 사고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온 승용차가 덮쳐 부부가 사망하고 세 살 난 이들은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 이런 사연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고 운전자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산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불교의 계율 가운데 첫 번째이다. 여기에는 불살생(不殺生)을 넘어 '죽여가는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보살행(菩薩行)도 내포되어 있다. 미혹한 중생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전부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가장 행하기 어려운 수행덕목이다. 두 부부의 종교여부를 떠나 그 행위는 보살행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보살행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습관이 되고 생사를 건너뛰어 보살행으로 승화되는 것이다.

외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부친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려 하는 깊은 정을 가진 아들이었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하나 뿐인 목숨을 먼저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부부의 명복을 빈다.

■ 이준업(취재부장·호남주재)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불교 군중병 미달 아쉽다

지난 1월에 사상 최초로 실시된 군중병 공개모집 결과 불교군중병 분야에서는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 벌어졌다고 한다.

14명을 모집하는 불교 군중병 분야는 11명만이 응시했을 뿐이었다는 것. 이에 비해 타종교의 경우 모두 초과 지원이라는 결과를 냈다. 개신교는 13명 모집에 108명이 지원해 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가톨릭도 35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관심이 물론 결과를 보여줬다.

어째서 불교는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참 씁쓸한 마음이 든다. 군중병 장교 숫자도 개신교가 불교의 두 배 정도 된다고 한다.

이번 군중병 모집과정에 나타난 결과는 젊은 층의 불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젊은 불자가 줄어들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불교계는 다같이 반성하자. 왜 젊은 층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지. 원인은 없는 결과가 없다.

단 13명을 뽑는 군중병 모집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냈다면 불교계의 젊은 층 포교전략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같이 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현 불교의 모습이 젊은이들을 때로시킬 수 없다면 불교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이다.

정원영(경북 구미시 송정동)

대세 거스르는 출가연령 제한

조계종의 출가연령제한은 대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진입장벽을 없앴다. 대신 경쟁이 심화돼 업계 내에서도 양극화된다.

출가 자격조건을 강화하려면 출가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법제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서 주지 등 선출직에 유능하고 자격 있는 인물이 등용되도록 걸러 내야 할 것이다. 티베트의 주지직은 엄격한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스님이다.

우수한 사회 자원을 받아들이는데 출가연령제한은 오히려 걸림돌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오히려 나이 어린 출가자들이 사회 경쟁력도 없고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법가가 아니라면 그 나이에 발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인도에서도 인생을 4기로 나뉘 노년기를 집을 떠나 수행으로 마감한다. 태고종 등에 사회명망가, 전문가 등이 불리는 것 보고 조계종은 당황했을 것이다. 출가자 연령제한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연령제한(웃다뉴스)

진정한 '방생'은 무엇인가?

2월 23일은 대보름이어서 전국 여러 사찰에서 방생법회가 열렸다. 예전에는 물고기나 거북이를 강에 풀어주는 방생

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방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물에 풀어주는 것 같은 일차원적인 방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전에 불교계의 방생문화를 행했던 어느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상인에게 물고기를 사서 상류에 방생하면 하류에서 그 물고기를 다시 잡아 파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방생인가 하는 것. 그 스님은 차라리 돈을 모아 고기잡이 배를 하루 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방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산 생명을 놓아준다는 형식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결국은 큰 의미의 방생이 아닐까. 진정한 '생령 살림'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윤희대(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지하철 종합운동장역 '절'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지하1층에는 절이 있다. 지하철공사 범우회에서 만든 곳이라고 한다. 우연히 이곳에 법당이 꾸며진 것을 알고는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매일 둘째·넷째 화요일 오후 7시에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연다는 것도 너무 반가웠다.

이 근처에 사는 불자라면 멀리 있는 절을 찾지 말고, 지하철 법당을 찾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 강성현(서울 서초구 반포동)

'연대' 민명 심민섭



이름하여 대자대비 모함(母艦)

탈종공고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귀하

Table with 4 columns listing names and addresses of members who have left the Buddhist sect. Includes names like 김재호, 신영국, 김준호, etc., and their respective addresses in various districts.

위 빈도들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부득이 탈종을 공고합니다.

불기 2549년 2월 15일